

시론

아프리카에서 배우는 민주주의의 지혜



진호림
㈜리얼프로텍 대표이사

'아프리카'라는 단어가 주는 첫 인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가난, 갈등, 부패,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 우리는 종종 아프리카를 이러한 이미지로만 떠올린다. 그러나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정권 교체는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오히려 한국이 배워야 할 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준다. 보츠와나에서는 지난해 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독립 이후 58년 간 집권했던 보츠와나민주당(BDP)이 야당에 정권을 내어줬다. 보츠와나는 총선에 승리한 다수당 대표가 대통령에 선출된다. 제1야당인 '민주적 변화를 위한 우산당(UDC)'이 61석 중 36석을 차지한 것이다. 당을 이끈 두마보코가 대통령에 선출됐다. 신임 두마보코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변화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함께 새 날을 맞이하자고 했다.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한 마시시 전 대통령에게도 사랑과 존중을 보내줄 것을 호소하며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보츠와나는 일찍이 민주주의를 뿌리 내렸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비견될 만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고틀라(Kgotla)는 오늘날 보츠와나 정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고틀라는 지역 공동체 내 의사 결정 기구다. 그 핵심은 협상과 합의. 이른바 '끝장 토론'을 통해 집단 간 관할 구역 획정, 식량 배분 등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전통과 함께 지도자들의 헌신과 노력은 오늘날 보츠와나가 이룬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성공요인이다. 초대 세레체 카마 대통령은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스스로 추장 승계를 포기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며 지금의 국가 체제를 구축했다. 부패를 척결하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그의 뒤를 이은 마시레 대통령은 고틀라를 현대 정치에 접목하며 사회안정을 꾀했다. 정렬한 정치의 본모기를 보여줬으며, 경제의 부흥을 이뤘다. 3대 모가에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모 이브라힘 상을 수상했다. 그는 국제기구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HIV 등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안 카마 대통령은 평소 농부를 희망했다. 그가 받은 퇴임 선물은 닭 수백 마리, 소 100여 마리, 이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트럭 1대. 그의 소박한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진실 어린 보답이었다.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보츠와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였다. '깊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무지'라던 보츠와나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다. 아프리카에서 자원은 저주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보츠와나는 예외였다. 보츠와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7천360달러로 세계 64위다.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정치와 세계 최대 규모로 매장된 다이아몬드가 창출하는 국부를 바탕으로 경제는 고속 성장을 이뤘다. 사회는 안정됐다. 대학까지 실시되고 있는 무상교육은 이 나라의 힘이 됐다. 그 힘을 바탕으로 보츠와나민주당(BDP)은 58년 간을 집권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보츠와나의 국가청렴도가 크게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23년 국가 별 부패인식지수서 보츠와나는 59점으로 3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63점으로 32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츠와나의 국가 청렴도는 우리보다 몇 단계 앞서 있었다. 한때는 아프리카의 모범 국가, 보츠와나의 청렴도가 우리 정부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기도 했다. COVID-19 이후 불어닥친 경기침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다이아몬드 판매가 줄면서 실업률이 급등했다. 청렴도는 떨어지고, 민생은 악화했다. 국민들 사이 불만의 소리는 선거에서 표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집권 세력을 심판했다. 그 결과가 정권교체다. 정치는 그런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성과로 평가 받는 과정이다. 성과가 좋으면 재 집권하고, 그렇지 못하면 정권을 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권 교체와 함께 맞은 새해 첫날 보츠와나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비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자연 현상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보츠와나의 화폐 단위를 풀라(Pula)와 테베(Thebe)는 '빗물'과 '빗방울'을 뜻한다. 비는 곧 풍요의 상징이며 축복이다.

자치칼럼

문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서순복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교수

한국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분단상황에서 전쟁과 폐전의 잿더미 속에서 '쓰레기더미에서 어떻게 장미꽃이 필 수 있느냐'며 외신기자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부존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 불과 50여일 전만해도 한국 정치상황은 위헌위법 소지의 비상계엄과 내란 발생으로 위기였지만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데 이어 내란수괴 피의자는 구속됐다. 분명코 이 땅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회복되고 헌정질서는 자리잡을 것으로 확신한다. 조선시대 입금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민초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위대한 나라이다. 12월3일 10시30분 아닌 밤 중에 흥두개 식으로 국회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오는 무장 계엄군으로 인해 온 국민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냈다. 남태령의 트랙터 동학농민시위대를 젊은이들은 강추위 속에 밤을 새워가며 함께 했고, 인간 키세스 시위대는 눈을 맞아가며 은박담요를 뒤집어쓴

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내려고 몸부림을 했다. 2030 MZ세대들의 뜨거운 심장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도 젊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나라이다. 일찍 보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사회인 듯하면서도 뜨거운 심장들이 사는 곳이라고 자부하고 싶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놀라운 대처는 세계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로운 저항을 보여줬다. 집회시위 문화가 80년대와는 달랐다. 이번 시위 현장에는 유머 감각, 재미있는 센스, 음악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시위 현장의 거리에서 젊은이들은 파티처럼 춤을 추고 노래하며, K-Pop 팬덤에서 보이는 전자 응원봉들이 물결처럼 모습을 띠는 세계는 다시 한번 감탄했다. K-민주주의의 자력을 실감했다. 어느 외국인 교수는 한국 사람처럼 시위를 즐길 줄 아는 민족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위기에 대해 시민들은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시민들은 분노했지만 희망을 보았고, 보여준 것이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다 때문이다"라고 했다. 정부 수립 이후 체제유지를 위해 문화가 정권에 의해 악용되기도

하고 예술 창작활동이 검열을 받기도 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기도 했다. 문화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요한 매개 수단이다. K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K-Pop으로 촉발된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의 국력은 올라가고 세계가 주목하던 나라가 2024년 12월3일 이후 삼시간에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시위 한복판에서 젊은이들이 위기를 문화와 축제로 승화시키는 헌신과 자발적 참여가 나라를 구하고 있다. 문화의 민주화 정책에서는 예술기관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연극, 발레, 오케스트라 등 고급예술을 가능한 한 다수의 대중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장하는데 초점을 둔다. 문화의 민주화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를 지향했다고 한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의한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기본법(제4호)에서도 모든 국민은 생애,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단지 문화의 향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활동을 참여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를 창조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정부나 문화정책을 펼쳐야 한다. 프로 예술가만 예술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예술가, 즉 아마추어 예술가 내지 시민예술가이다. 시민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이다.

독자투고

청소년 온라인 도박 증증...예방과 관심 절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 광고와 SNS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 위해 도박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초대 링크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단순 온라인 게임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통제력이 낮아 한 번 온라인 도박에 접하면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음주, 흡연 등 비행 행동으로 연결되거나, 돈을 잃은 후 또다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친구의 돈을 빼앗는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청소년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인터넷 도박의 위험성을 알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들을 치유할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지원도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민중·장흥경찰서 관선파출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 광고와 SNS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 위해 도박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초대 링크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단순 온라인 게임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통제력이 낮아 한 번 온라인 도박에 접하면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음주, 흡연 등 비행 행동으로 연결되거나, 돈을 잃은 후 또다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친구의 돈을 빼앗는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청소년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인터넷 도박의 위험성을 알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들을 치유할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지원도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민중·장흥경찰서 관선파출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 광고와 SNS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 위해 도박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초대 링크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단순 온라인 게임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통제력이 낮아 한 번 온라인 도박에 접하면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음주, 흡연 등 비행 행동으로 연결되거나, 돈을 잃은 후 또다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친구의 돈을 빼앗는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청소년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인터넷 도박의 위험성을 알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들을 치유할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지원도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민중·장흥경찰서 관선파출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 광고와 SNS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 위해 도박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초대 링크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단순 온라인 게임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통제력이 낮아 한 번 온라인 도박에 접하면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음주, 흡연 등 비행 행동으로 연결되거나, 돈을 잃은 후 또다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친구의 돈을 빼앗는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청소년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인터넷 도박의 위험성을 알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들을 치유할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지원도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민중·장흥경찰서 관선파출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説

윤석열 구속에 지지자들 초유의 법원 폭동 용납못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다.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2차 시도 끝에 집행했으며, 윤 대통령은 검사의 신청에 목비권을 행사해 맞섰다. 구치소에서 하루 밤을 샌 이틀째부터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아예 불출석했다. '모든 게 불법'이라며 구속된 이후에도 입을 꼭 다문 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강제인지(연행)나 방문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위헌·위법한 지시를 받아 이행해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신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동조로 간주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 기물을 마구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폭동이 발생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무법지대'가 됐다. 사상 유례가 없다. 정당한 법 절차에 나선 공수처 차장을 파손하며 위협도가 됐다.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대처해야 하겠다. 강성 팬을 자극해 혼돈을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하는 행태를 더 좌시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이 급하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변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속도를 내고 있어, 다행스럽다. 국회 추천 재판관의 임명을 마무리해 9인 체제로 정상화하고 내란 특검법도 즉각 통과돼야 한다. 국가 불안은 획책하는 세력에게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로 헌정 질서 중단을 허용하랴도 빨리 끝내야 한다. 국민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광주시 문화기관장 낙하산이면 '득보다 실' 많을 것

광주시민·미술인 300여명이 시립미술관장 공모와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와 자격 검증을 위한 연대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그동안 문화예술기관 자리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립미술관은 관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모 절차를 진행중으로 11명이 응모했으며,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가 예정돼 있다. (재)광주비엔날레도 지난해 12월 대표이사 임기가 끝나면서 직무대행체제가 됐다. 강기정 시장 캠프나 지연, 학연 등으로 얽힌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아직 공모 이전인 광주비엔날레에 정치인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성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공공기관장에 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예부터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다. 수

장의 역할이 대외적 위상뿐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은 이유다. 인사의 중요성이야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별첨 출신 등 기관 안팎에서 어수선하고 광주의 이미지 또한 상당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 내에서도 리더십의 부재가 불거지고 결국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정치적 배경으로 인선한다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임은 자명하다. 광주시는 잡음이 있어선 안 된다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 민선 8기 후반기라는 점에서도 측근 챙기기 행태는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광주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조직개편이라고 강변하는데 의혹은 수그려지지 않고 있다. 무수히 나도는 사전 내정설은 단지 설로 그쳐야 한다. 문화기관장 직위에 맞는 제대로 된 인물이 있어야 한다. '예향의 도시' 품격을 훼손하는 일 없길 바란다.

아침물어는 詩

눈 속에 핀 집

김문순



겨울이 쏟아져 산그늘까지 덮은 변방에서 파수꾼으로 서 있는 나는 눈이 멀고 귀 멀어 있다 온통 백색 적막 속에 드리운 야트막한 언덕에 앞도려 있는 목청벌을 떨거나 바라본다

어둠이 내리면 나는 골방보다 더외로워진 한 점으로 폭, 파문처럼 별들이 지나는 길에 폐정거장처럼 우두커니 앉아 하루의 변방을 지키는 고독이 된다 눈과 귀와 입이 봉해진 채 언어를 잃어버린 듯 멍하니 먼벽을 건넌다 새벽이 올 즈음, 머리와 몸, 손과 발이 점점 풍경이 되기 시작하더니 아침 햇살에 무소유한 손이 빛나기 시작한다 (시집 '돌에게 자꾸 들켰다', 더루문, 2024)

[시의 눈]

엄청나게 밝은 눈입니다. 나 눈멀고 귀도 멀었습니다. 연사를 내린 눈은 모든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외판 성처럼 보이는 변방에 난 적막을 지키는 한 파수꾼이 됩니다. 한 떼의 참새들이 쪼다 날아갑니다. 사방은 다시 적막에 묻히지요. 멀리 보이는 암자조차 눈에 묻혀 가뭇합니다. 가만,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는 듯 해요. 혹은 그가 얼음장 밑 안부를 물 올지 몰라 주운 짐을 나섰습니다. 허연, 눈을 닦은 지 꽤 됐군요. 온통 설화가 만발한 장물재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이 눈보라 새벽은 흰 설화를 더 풍성하게 하겠지요. 하지만 속세의 나는 눈발의 햇살을 기다립니다. 번뇌를 딛고 한숨이 무소유로 흰 피어날까 해서이지요. 이제, 지금 막 서석대에 올라 아침 해를 기다리는 참입니다. 김문순 시인은 전남 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2022년 '열린시학'으로 등단해 현재 재능사업총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아동에서 빛을 찾고 얼어붙은 고체에서 액체를 구하듯 사물이 흐르도록 녹여내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초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